

충북지역 보건진료원의 업무 분석적 연구

김 회 자

요 약

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,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율, 평균값,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.

조사기간은 1968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분포는 30-34세가 30.1%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.8%였다. 종교는 기독교가 42.6%로 많았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자가 78.9%로 많았다.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.5%였고,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년 미만이 41.2%로 가장 많았다.

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,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.3%였고,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였다.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, 보건진료소 시설은 "그저 그렇다"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.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~7만원인 경우가 85.6%였다.

2.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

같다.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~1,000명이 35.3%이고, 1,5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%였다.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민은 연 평균 1,956명이고,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,812건이다.

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.6%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.

3.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.

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진료소가 1위로 가장 많았고, 약국, 약방, 의원,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.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, 보건소(19.7%), 보건지소(20.2%) 민간보건 의료기관(22.4%)이며,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.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(47.3%), 보건간호 전문가(37.2%)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계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.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병원(52%), 의원(24.4%), 보건소(10.2%) 순이었다.

4.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 통상질환 관리가 3.70점,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

가 3.44 점, 사업계획 수립이 3.19 점,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.17 점,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.14 점,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.09 점, 보건정보체계 개발이 3.02 점으로 나타났다.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.09 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.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,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.

5.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

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.

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.48 시간, 사업계획 수립 3.55 시간, 지역사회보건 관리 6.74 시간,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.55 시간, 통상질환 관리 15.94 시간,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.39 시간, 보건정보체계 3.62 시간으로 나타났다.

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,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